

# 북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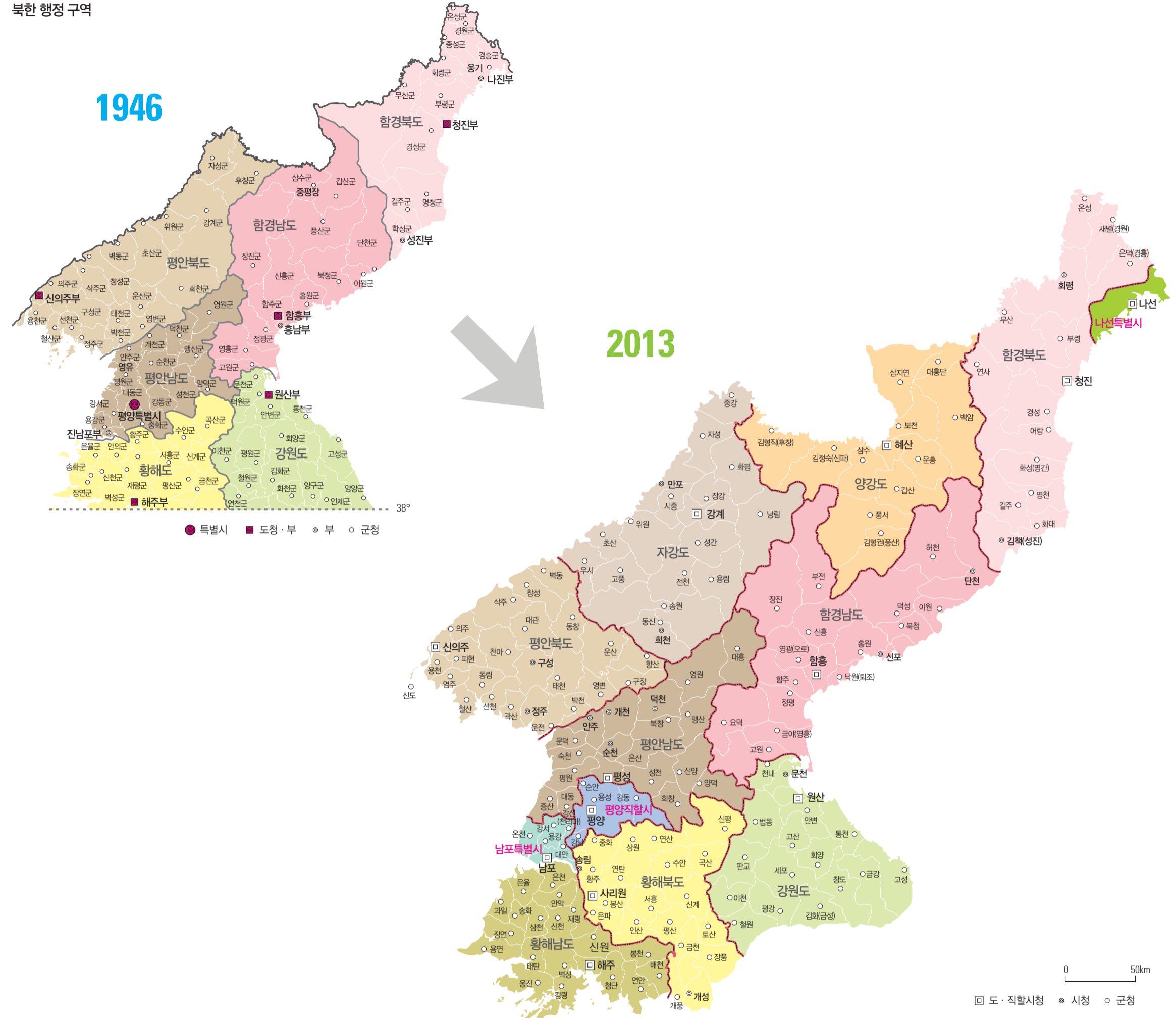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 협정으로 설정된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3,138km<sup>2</sup>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3,404km<sup>2</sup>의 약 55.8%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2013년 현재 약 2,450만 명으로, 북한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도 499.1명/km<sup>2</sup>의 40% 수준인 199.3명/km<sup>2</sup>에 그치고 있다. 북한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접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1,353.2km에 이르며, 신의주-단둥 구간의 압록강철교 등 교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된다. 러시아와는 16.2km를 접하고 있으며, 나선-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장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은 6도, 9시, 89군, 810읍·면이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시·군·읍·면·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계에서 면을 폐지하였고, 도(직할시)·시(구역)·군·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구역의 개편이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로는 최근 경제적 목적으로 시행한 나선시와 남포시의 특별시 승격을 들 수 있다. 2014년 현재 북한은 1직할시(평양직할시), 2특별시(남포특별시, 남포특별시), 9개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지역의 지형은 백두 대간인 남방산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등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부와 서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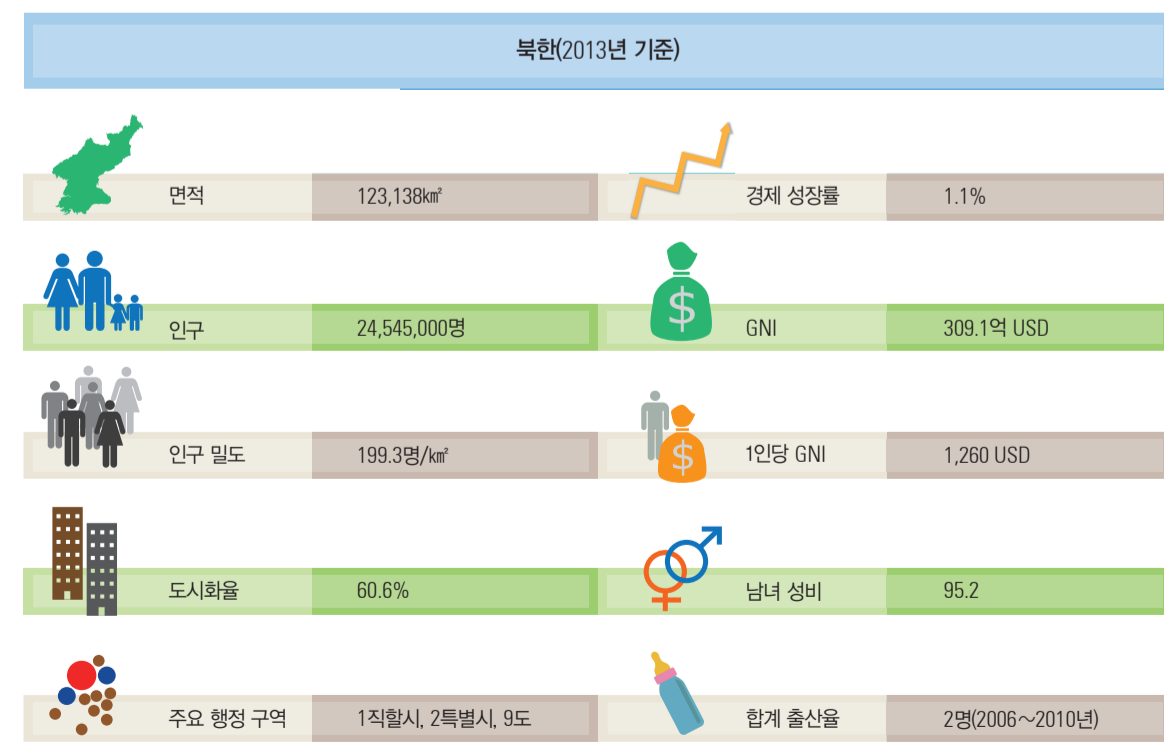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 지대를 벗어나면 완만한 경사를 가진 곡류 하천의 특성을 보이지만, 두만강, 남대천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직류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평야인 평양평야, 재령평야, 연백평야 등은 주로 황해로 흐르는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대에 발달해 있다. 북한 지역은 지질적으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물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의 경우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부존 광물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40여 종에 이른다.

북한 지역의 기후는 온대 지역에 속하나,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매우 춥지만, 여름은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특성을 보인다. 북한 지역의 연 강수량은 약 600~1,500mm에 이르며, 이 가운데 53~63%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린다. 또한,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다. 북한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지속된 4대 군사 노선의 하나인 '전 국토의 요새화' 정책,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연 개조 5대 방침에 따른 '다락밭(산비탈에 계단형으로 만들어진 밭) 개간', 1980년대에 시작한 '새 땅 찾기 사업' 등으로 산림 훼손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식량, 연료 등을 얻기 위해 산림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산림의 황폐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북한 행정 구역



북한 지역 개발



북한 행정 구역 현황

구분	2013년								
	시	군	구역	구	자구	읍	리	동	노동자구
평양직할시	-	2	18	-	-	1	57	284	10
남포특별시	-	-	-	-	2	-	12	20	-
남포특별시	-	2	5	-	-	2	49	73	5
평안남도	5	14	-	1	2	14	347	118	26
평안북도	3	22	-	-	-	22	484	88	31
함경남도	3	15	7	1	1	15	465	160	35
함경북도	3	12	7	-	-	12	253	134	44
황해남도	1	19	-	-	-	19	419	26	11
황해북도	3	18	-	-	-	19	393	78	8
강원도	2	15	-	-	-	15	379	61	7
자강도	3	15	-	-	-	15	229	68	23
양강도	1	11	-	-	-	11	143	25	67
계	24	145	37	2	5	145	3,230	1,135	267

북한의 인구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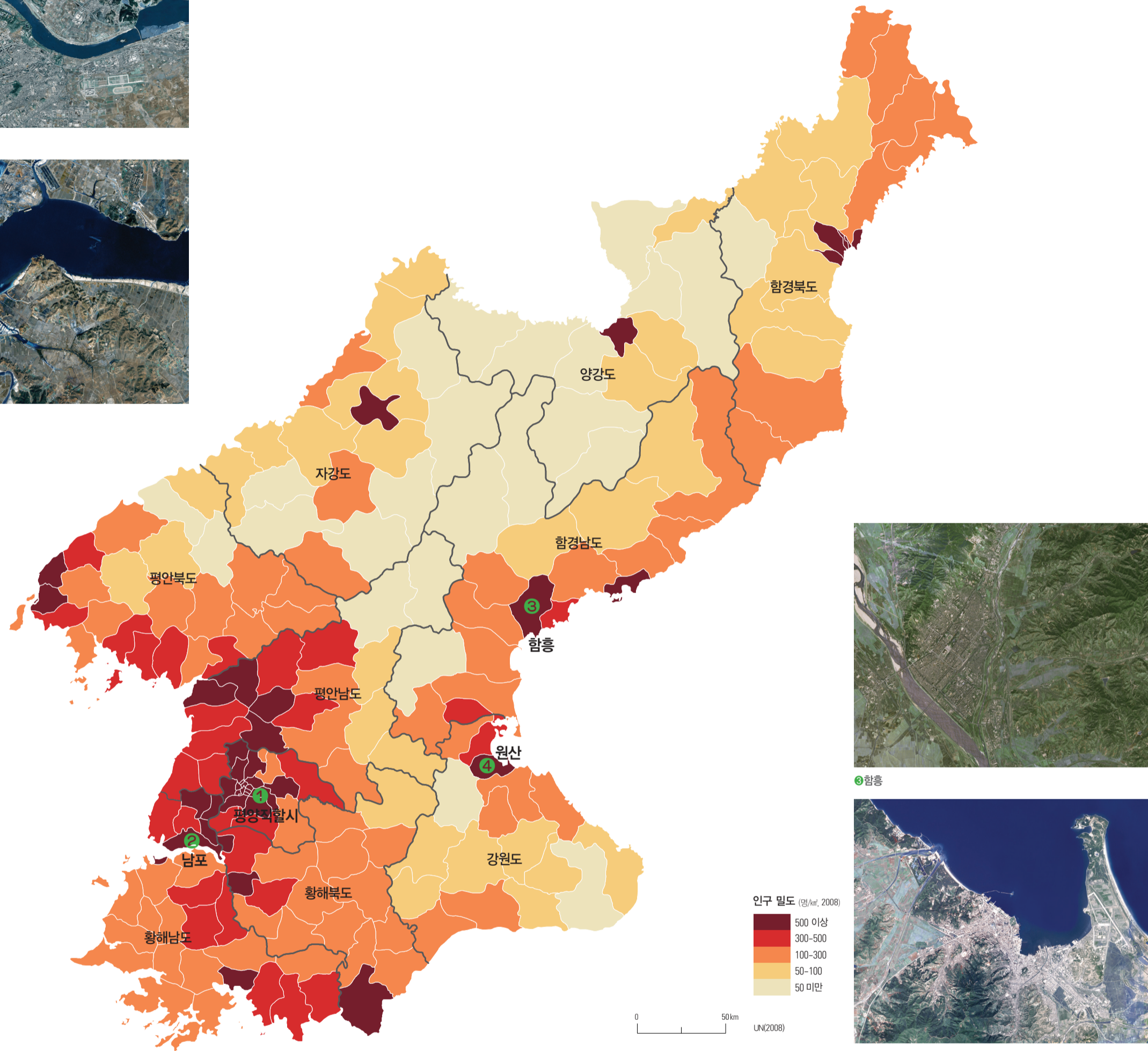


●평양



●남포

북한의 인구 밀도



●함흥



●원산

광복 이후 1946년 북한 지역의 전체 인구는 약 926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급감하여 1953년에는 약 849만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1958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고, 1980년대 후반에 2,0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북한 중앙통계국의 공표 인구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 등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는 1992년에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하였다. 이후 1993년부터 매년 꾸준히 약 1% 내외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4년에 전체 인구가 2,400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주로 고도가 낮고 평야 지대인 남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평양직할시를 중

심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에 산악 지대가 많은 북동 지역(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은 혜산시, 청진시, 함흥시, 강계시 등 일부 도시와 동해 연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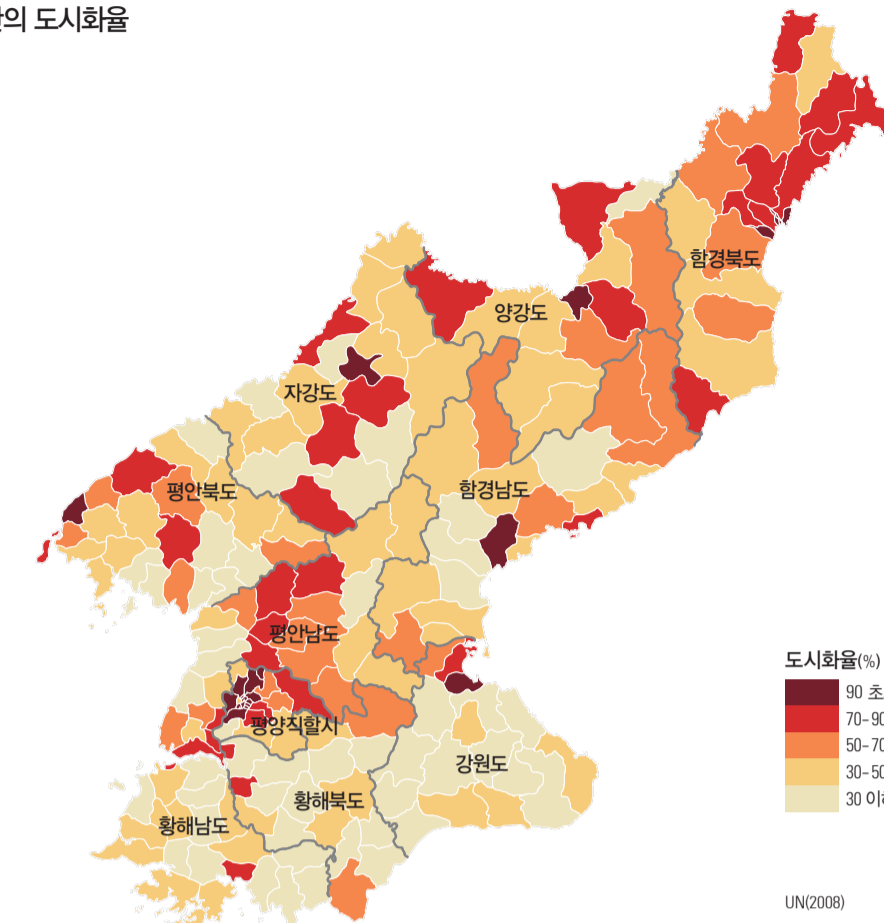
유엔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지역의 5세 이상 이주 인구는 총 234,8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북한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도별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평양직할시와 평안남도의 이주 인구가 가장 많다. 특히 평양직할시의 경우 북한 지역 전체 전입 인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어(전출 인구는 10.2%), 전체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과 많은 수의 전입 인구

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북한 지역 중에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만이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고, 나머지 지역 모두 높은 인구 유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함경남도는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의 약 2배에 가까운 정도로,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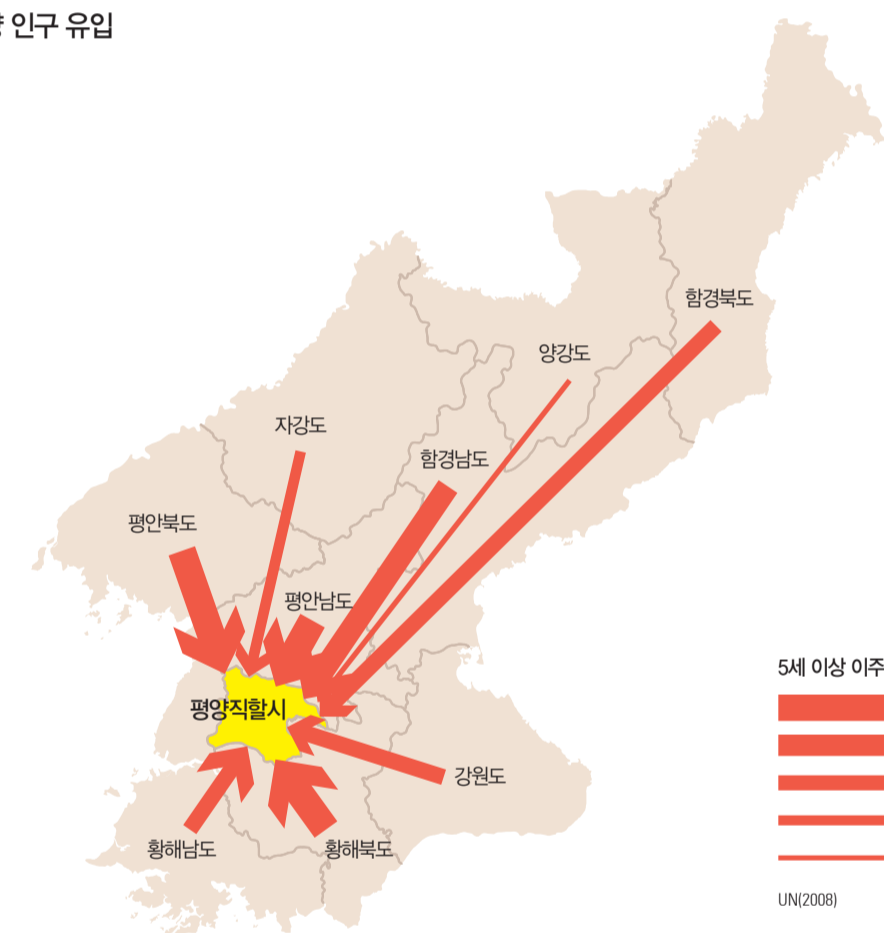
평양직할시의 경우 전체 전입 인구의 30.2%가 평안남도 출신이며, 뒤를 이어 황해북도가 13.6%, 평안북도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체로 전입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평양의 전출 인구의 경우, 평안남도가 40.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역 들로의 전출은 전반적으로 고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양의 전입 및 전출 인구의 구성에서 또 다른 독특한

양상은 타 지역보다 양강도와 자강도로의 인구 이동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양강도와 자강도로의 전출 인구 비율은 0.01%와 0.03%이며, 양강도와 자강도에서 평양으로의 전입 인구는 0.03%와 0.0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강도와 자강도의 인구가 적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될 수 있으나,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강원도의 경우 평양으로의 전출 인구는 8.5%, 전입 인구는 14.3%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 낙후 지역인 양강도와 자강도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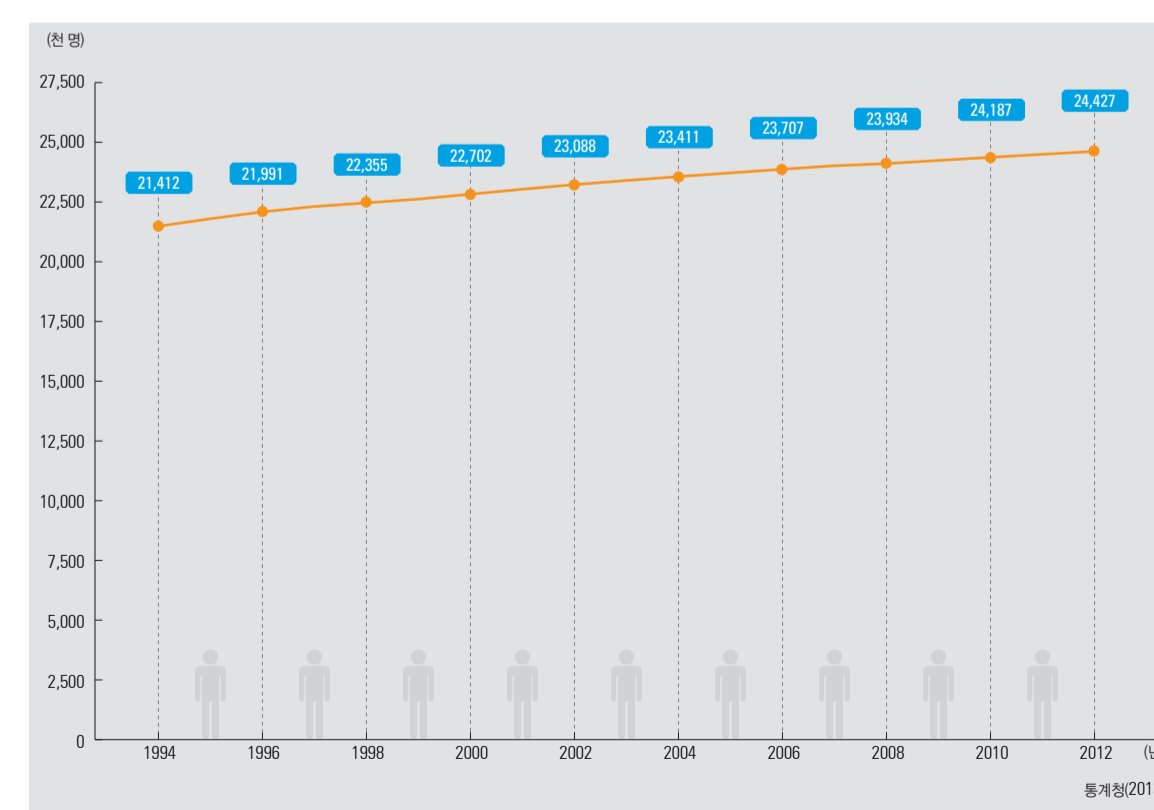
북한의 도시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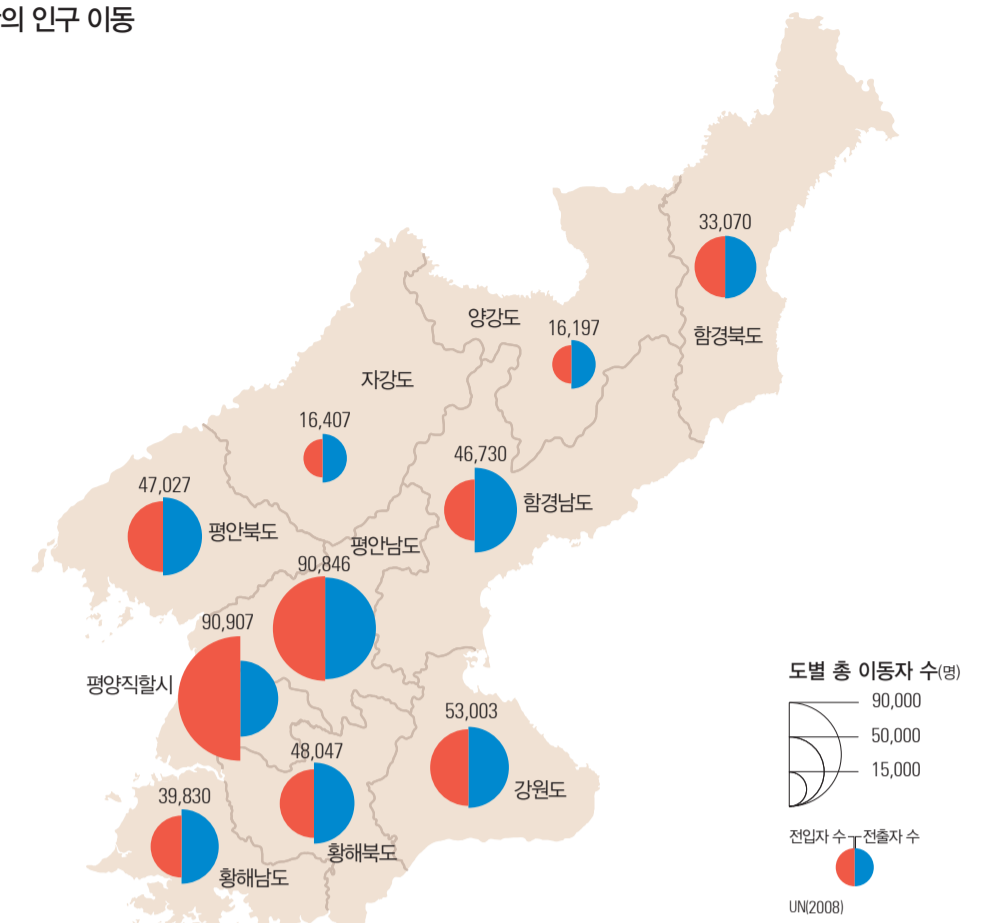
평양 인구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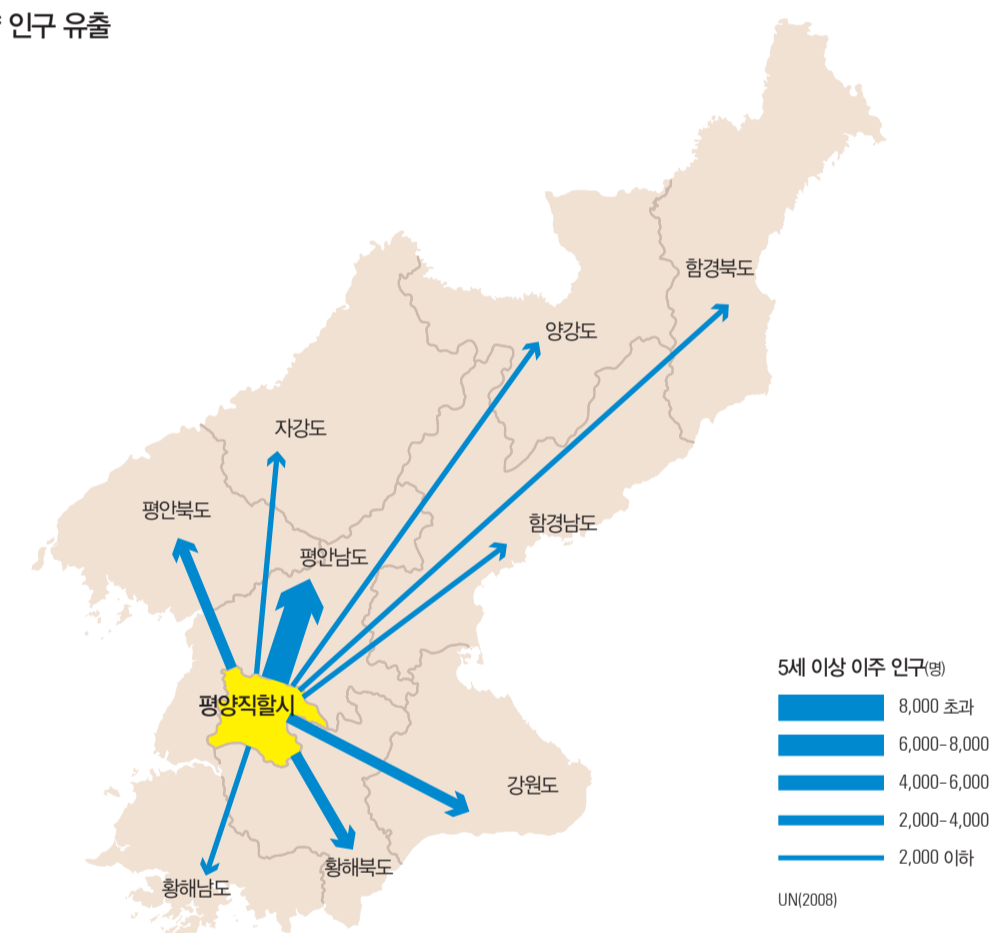
북한의 연도별 인구 추이



북한의 인구 이동



평양 인구 유출



2008년 현재 북한 지역 총인구의 64.6%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평양직할시의 경우 도시 전체 인구의 86.7%가 시가화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서 도시화가 가장 진행된 지역이다. 뒤를 이어 나진·선봉 경제 특구, 청진시 등의 주요 도시가 있는 함경북도는 전체 인구의 70.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남포특별시 소재한 평안남도는 64.9%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도들은 모두 평균 이하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지역은 도시화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은 광복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도시화율은 1953년 31%에서 1976년 56.7%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도시화 추세는 매우 더딘 상태이다.

2008년 현재 북한의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로 전체 인구는 325만 5천 명이며, 그 뒤를 함경남도 함흥(76만

8천 명)과 함경북도 청진(66만 7천 명)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평양뿐이며,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2개, 10만 명 이상인 도시는 18개에 불과하다.

북한 지역의 도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1940년에는 평양-청진-원산-함흥의 순서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함흥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평양-함흥-청진-원산의 순서였으나, 1982년에는 청진이 다시 제2위의 도시로 올라서서 평양-청진-함흥-원산의 순서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로 다시 함흥시가 추월하였고, 남포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2008년 현재 평양-함흥-청진-남포의 도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지역 도시 발달의 주요한 경향은 서부의 평양~남포와 동부의 함흥~청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북부 지역의 혜산시, 강계시, 신의주시 등과 중부 지역의 평성시, 개천시, 순천시, 덕천시 등이 80% 이상의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들이다.

